광주서 전국 첫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열린다

시, 7일 시청서…지역 장애인 복지 기관·단체 94곳 참여 문화·교육·의료·직업재활 등 10개 분야 130개 부스 운영

광주시가 분산돼 열리던 장애인 복지 행사를 하나로 묶어 전국 최초의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를 여다

장애인 복지부터 일자리, 건강 정보까지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되 거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시청 야외광장과 시민홀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

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 광주장애 인체육회가 협력한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와 '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장애인복지 분야)'로 나 뉘어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한 무대에 모아 기관 간 협력과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장애인복지·직업·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형식으로 묶은 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지역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94곳이

참여해 문화·교육·의료·직업재활·직능 등 10개 분 야 130개 부스를 운영한다.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부터 일자리 상담, 재활·운동 체험, 건강검진까지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상습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시 민과 현장이 함께 만드는 광주형 복지축제로, 장애 인복지에 대한 공감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 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야외음악당에서 식전공연 '그린앙상 블'로 문을 열고, 개막선언·축사·유공자 표창과 기 념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이어 부스 라운딩과 이벤 트, 공연이 오후까지 진행된다.

부대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개막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며,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단 '그린앙상블'의 식전공연으로 마음 오리다

1층 시민홀에선 오후 1시30분 '광주야 날자! 새롭게 날자!'를 주제로 장애인복지 정책 토크쇼가열리고, 오후 3시에는 '흑백요리사'로 잘 알려진조리명장 안유성의 '문턱없는 식당, 모두의 식탁'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안 명장은 그간의 나눔활동 계기부터 향후 계획 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재능기부로 행사에 동참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포 토존과 휴게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잔디광장에서는 콘홀·플라잉디스크·그라운드골 프·셔플보드·투호·스피드스태킹 등 뉴스포츠 6종 체험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 통합안내부스에서 프로그램표 배부와 휠체어 대여, 응급약품 비치를 지원하고, 수어통역 지원부스를 별도 운영한다.

참여 부스에는 몽골텐트·테이블·의자와 전기 등을 지원해 체험과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했고, 포토 존과 휴게존, 푸드코트도 마련했다.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 터와 '광주장애인종합정보시스템 누리빛'홈페이 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만의 사회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정책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장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알리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않고 서로를 품는 포용도시 광주로 가겠다"고 말했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 나이팅게일 선서식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의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5일 오후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12명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생명존중과 헌신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제 헌혈해도 영화관람권 못 드려요

적십자 혈액원, 기념품 계약 수 차례 유찰로 지급 중단

헌혈자들에게 지급되던 영화관람권 제공이 중단 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올해 헌혈자 기념품 중 영화관람권 계약이 수차례 유찰돼 영화관람권을 더 이상 기념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5일 밝혔 다.

혈액원은 지난 6월부터 영화관람권 판매처를 찾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1개 영화사만 단독응찰하면서 계약이 네 차례 유찰됐다.

헌혈 기념품 기준 금액은 5000원권으로 고정돼 있는데, 영화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영화 사가 제시한 단가와 적십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맞지 않아 유찰이 이어졌다는 것이 혈액원 측 설명

영화관람권 지급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예산 증액 등 별도 대책도 없는 상태다.

혈액원은 영화관람권이 젊은 층의 주요 헌혈 동 기였던 만큼, 헌혈 참여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를 내비치고 있다.

영화관람권은 광주·전남에서만 연간 8만여장이 지급돼 매년 전체 기념품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해 왔다.

광주전남혈액원의 경우 영화관람권 인기가 많아

지난달 중순께 모든 관람권을 소진했다. 현재는 대체품으로 영화관람권외에도 커피·편의점·패스트푸드 교환권, 보조배터리 등 대체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능, 겨울방학 등으로 단체 헌혈이 어려운 시기가 겹치며 혈액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오고 있다.

이혜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충장로센 터장은 "영화관람권은 헌혈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 하는 기념품이라 최근 헌혈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러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봉사점수나 기념품 을 생각하고 찾는 헌혈자들이 많은 만큼 헌혈인구 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올해 전국 누적 헌혈 참여자는 220만7021명으로, 이 중 광주·전남에서는 15만 4238명(6.99%)이 참여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 오는 장동혁 국힘 대표…진통 예상

오늘 5·18민주묘지 참배…시민단체 "폄훼·내란 옹호 사과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 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에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장 대표를 두고 "5· 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데 사죄해야 한다" 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5·18유족회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참배 이후에는 민주묘지 내 VIP실에서 5·18유족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복합쇼핑몰 부지, AI데이터센터 등을 방문할 예 전이다.

5·18유족회 측은 간담회에서 장 대표에게 5· 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약속을 이 행하고 앞장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5·18과 관련된 현안들을 공유하고 야당 대표로서 5·18 정신 선양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장 대표는 5·18기념재단과 5·18부상자회, 공로자회에게도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

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들 단체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장 대표의 묘지 참배에 반발하고 나섰다.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 등 광주 지역 81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장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사자명예 훼손 재판에서 부장판사로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옹호해 5·18 왜곡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 나간 인물이 군사독재정권 의 계엄에 희생된 오월 영령을 참배하는 것은 정 치 쇼"라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스트, 세계적 연구역량 입증…교원 23명 '상위 2%'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5일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Top 2% Scientists 2025)' 명단에 GIST 소속 연구자 2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네덜란드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 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가 매년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영향력 평가 명단이다.

논문 수나 인용 횟수뿐 아니라 인용지수·공동 저자 기여도·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함께 반영한 'h-인덱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문 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꼽힌다. 지스트는 전임교원 194명 중약 12%에 해당하는 연구자 23명이 올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

이중 상위 1%에 포함된 세계 최정상급 연구자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임춘택·함병승 교수, 기계로봇공학과 안효성 교수,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인수 교수 등 9명이 포함됐다. 임춘택·함병승·안효성·김용철 교수 등은 5년 연속 1%에 뽑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김경웅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환경과학 분야)도 2021년부터 5년 연속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